

7. 다음 만화를 보고 떠오른 생각을 글로 쓰기 위한 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야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때?
- ②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마음속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내용도 좋지 않겠니?
- ③ 고독하게 살아가는 삶보다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이 더욱 가치 있다는 내용도 필요할 것 같아.
- ④ 사람 사이에 쌓인 마음의 벽이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든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좋을 거야.
- ⑤ 사람 사이의 단절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되므로 마음을 달리 먹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도 좋겠지.

8. <보기>의 조건을 고려하여 풍물 동아리를 홍보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구상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 제목 : 열정 넘치는 풍물 동아리 '땅울림'
- 독자 : 1학년 신입생 전원
- 내용 :
 - 동아리의 활발한 대외 활동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개하여 신입생들에게 신뢰를 줄 것
 - 동아리 활동이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
- 표현 : 홍보 내용 중에 운문 형식의 글을 가미할 것
- 자료 : 전달 효과를 고려하여 시각 자료를 활용할 것

- ① 동아리 이름으로 삼행시를 재미있게 만들어 신입생들이 흥미를 갖게 해야겠어.
- ② 동아리 이름의 변천 과정을 소개하여 다른 동아리와의 차별성을 부각해야겠어.
- ③ 신입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리 동아리의 공연 모습을 담은 다양한 사진들을 보여 주어야겠어.
- ④ 각종 경연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력을 제시하여 우리 동아리에 대해 믿음을 주어야겠어.
- ⑤ 동아리 활동이 학교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여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어.

9. '정보화 시대에 국어가 처한 문제점과 그 극복 방안'이란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한다. 글감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요>	<글감>
1. 정보화 시대의 국어 사용 실태 - 규범에 맞지 않는 언어 및 외국어의 남용	㉠ 인터넷 등 정보 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2. 정보화 시대에 국어가 훼손되는 원인 - 국어 규범에 대한 인식 부족	㉡ 인터넷의 정보를 찢김기하여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기 글처럼 발표하는 사람이 많다.
3. 바람직한 국어 사용 문화의 확립 방안 - 규범에 맞는 국어 사용 권장 및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 경계	㉢ 학교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바른 말 사용의 필요성을 깨우쳐 주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하여 시행한다.
4. 정보화 시대에 바람직한 국어 사용의 필요성 - 국어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	㉣ 인터넷상에서 '쌔', '쌔', 'R갓 G', '근D', '굉장히 하드한 거지'만 알바 할 찬스를 잡았어.'와 같은 말들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 말은 민족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 ① ㉠ : ㉠을 활용하여 '정보 매체의 발달로 인한 외국어의 무분별한 수용'이라는 하위 항목을 추가한다.
- ② ㉡ : '국어 규범에 대한 인식 부족'이 ㉡로 인해 초래된 현상임을 지적한다.
- ③ ㉢ : ㉢을 국어 사용 실태의 예로 제시하여 국어 사용의 문제점을 부각시킨다.
- ④ ㉣ : ㉣의 내용을 수용하여 해결 방안이 추상적으로 제시되지 않도록 한다.
- ⑤ ㉤ : ㉤을 통해서 정보화 시대일수록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어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함을 강조한다.

10. 새 학기를 맞아 '삶의 태도'와 관련된 다짐을 짧은 글로 써 보려고 한다. <보기 1>의 관점과 <보기 2>의 표현 기법을 모두 살린 문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1 >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현재의 자기를 만든다. 따라서 미래는 현재의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 보 기 2 >

- 국화처럼 은은한 향기를 지닌 엄마가 그림다.
- 바구니에는 사과, 배, 감, 귤, 석류 등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담겨 있었다.

- ① 얼음처럼 냉정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자. 자신의 사소한 단점까지도 찾아내어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큰일을 이룰 수 있다.
- ② 나 자신을 믿고, 나의 미래를 확신하고, 나만의 철학을 갖고 행동하자. 삶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없으면 성공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할 것이다.
- ③ 과거나 현재의 처지, 환경, 운명을 너무 무겁게 짊어지지 말자. 오로지 미래만을 위해 깨어 있는 사람이 되자.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 ④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인생이다. 끊임없는 반성, 성실한 노력, 그리고 꿈과 열정이 나를 만든다. 나는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건축가와 같다.
- ⑤ 무엇을 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실천에 옮기자.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되, 누운 풀처럼 나 자신을 낮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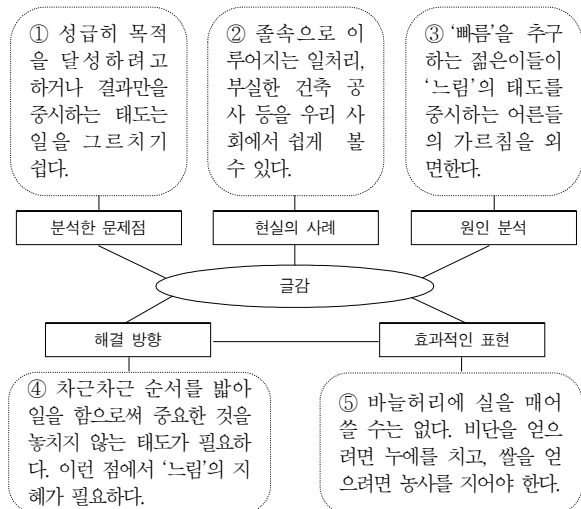
11. 다음의 논제에 따라 논술문을 작성하기 위해 구상한 글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논제】 <제시문>에 드러나는 ‘나’의 행동 특성이 다수의 현대인들이 지닌 행동 성향이라 할 때, 그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할머니’의 시각이나 입장에서 그 해결 방향을 찾아 논술하시오.

<제시문>

산그늘 내린 발키통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툰다.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한번을 내리치는 데도 힘을 더한다.
세상사(世上事)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대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좌아좌아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도시(都市)에서 십 년을 가차이 살아 본 나로서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파람을 불어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댄다.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번만 기분 좋게 내려치면
참깨처럼 좌아좌아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할머니의 가엾어 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 김준태, 『참깨를 털면서』 -



12. <보기>는 ‘나의 단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란 글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저의 단점은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언제부터 이러한 단점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맞벌이를 하신 부모님이 출근하신 이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없다 보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가슴을 조리게 됩니다. 또 어떤 임무가 주어지면 ‘나는 안 돼.’하는 생각부터 하곤 합니다. ㉡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제 단점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아무리 어렵지만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병영 캠프에 참석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수정 이유	수정 결과
①	㉠ : 뒤에 이어지는 절의 내용과 상반됨	㉠을 삭제한다.
②	㉡ : 글의 흐름으로 보아 문장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음	㉡을 ㉢로 옮긴다.
③	㉢ : ‘아무리’와 ‘어렵지만’이 호응하지 않음	‘어렵지만’을 ‘어려우나’로 고친다.
④	‘맞벌이’, ‘조리게’ : 규범에 맞지 않음	‘맞벌이’, ‘줄이게’로 고친다.
⑤	‘참석’ : 어휘의 선택이 적절하지 않음	‘참가’로 바꾼다.

13. <보기 1>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2>의 빈 칸 어느 곳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은?

< 보 기 1 >

◦ ‘비슷하다’의 유의어를 조사한 결과

- 흡사(恰似)하다 : 거의 같을 정도로 비슷하다.
- 백중(伯仲)하다 : 낮고 못함이 없이 비슷하다.
- 방불(彷彿)하다 : 같다고 느끼게 하다.
- 유사(類似)하다 : 서로 비슷하다.
- 상당(相當)하다 : 어느 정도에 가깝거나 알맞다.

< 보 기 2 >

- 능력에 ()한 대우를 받다.
- 그는 식성이 아버지와 ()하다.
- 태풍 피해 현장은 전쟁터를 ()케 했다.
- 그의 얼굴 생김새는 자기 아버지와 매우 ()하다.

- ① 흡사 ② 백중 ③ 방불 ④ 유사 ⑤ 상당

14. <보기>의 '표준 발음법 규정'에 맞게 발음했는지 판단하여 ○, × 표시를 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제10항 겹받침 ‘ㄱ’, ‘ㄴ’, ‘ㄷ’, ‘ㄹ’, ‘ㅂ’, ‘ㅅ’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 ㅂ, ㅅ]으로 발음한다. 다만, ‘ㄱ’은 자음 앞에서 [ㄲ]으로 발음한다.

제11항 겹받침 ‘ㄷ’, ‘ㄹ’,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ㄷ’은 ‘ㄱ’ 앞에서 [ㄷ]로 발음한다.

제13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엎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 그는 노뚝뚝을 밟고(발:꼬, 밟:꼬) 말에 올랐다.(○) ①
○ 비가 그치더니 날씨가 맑게(막게, 말게) 개었다.(○) ②
○ 아내는 닭을[달걀, 다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③
○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꽃을(꼬줄, 꼬술) 선물했다.(○) ④
○ 나는 값을(가블, 갑술) 비싸게 주고 컴퓨터를 샀다.(×) ⑤

【15-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 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 ㉠ 과릇한 미나리 씩이
봄날을 꿈꾸듯

새해는 참고

- ㉡ 쑤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 술과

- ㉢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

┌ 세상은

- [A] 험난(險難)하고 각박(刻薄)하다지만

└ 그러나 세상은 살 만한 곳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 더 착하고 슬기로운 것을 생각하라.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것들 잇몸에 돌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 김종길, 『설날 아침에』 —

(나)

홍부 부부가 ㉤ 박덩이를 사이 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이 문제리

황금 비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 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面)**들아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 금시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면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本)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 박재삼, 『홍부 부부상』 —

(다)

강호(江湖) 한 ㉥ **쑤**을 쑤 지도 오래더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하여 어즈버 잊었도다

침피기옥(瞻彼淇澳)한대* 녹죽(綠竹)도 많기도 많구나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 다오

노화(蘆花) 깊은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라

다툼 이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인가 여기노라

무상(無狀)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있으리마는

두세 이랑 발논을 다 목혀 던져 두고

있으면 ㉦ **죽(粥)**이요 없으면 **끓음**당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앓겠노라

내 빈천(貧賤) 슬피 여겨 손을 짓는다고 물러가며

남의 부귀(富貴) 부럽게 여겨 손짓한다고 다가오라

인간(人間) 어느 일이 명(命) 밖에 생겼으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내 생애(生涯) 이러하되 설운 뜻은 없노매라

- ㉧ **단사표음(簞食瓢飮)**을 이도 족(足)히 여기노라

평생(平生) 한 뜻이 온포(溫飽)에는 없노매라

태평천하(太平天下)에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그러다 할 이 님 있으리

그 밖의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살겠노라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 구복(口腹) : 먹고 사는 것 / * 위루(爲累) : 누가 됨. 거리낌이 됨

* 침피기옥(瞻彼淇澳)한대 : 저 기수(淇水)의 물가를 보건대

* 유비군자(有斐君子) : 빛나는 군자. 교양 있는 선비

* 빈이무원(貧而無怨) :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음

15.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정형적 울격의 효과가 잘 나타나 있다.
- ② 청각적 이미지의 효과를 활용하고 있다.
- ③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다.
- ④ 고전 문학에서 작품의 제재를 차용하고 있다.
- ⑤ 화자가 관찰자가 되어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

16. (가)의 ㉠와 (다)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현실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는 현실적 갈등을 해소시킨다.
- ② ㉠는 화자를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고, ㉡는 화자를 혼란스럽게 한다.
- ③ ㉠는 화자에게 과거의 고통을 잊게 해 주고, ㉡는 화자에게 과거의 고통을 상기시킨다.
- ④ ㉠, ㉡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초월적 세계를 의미한다.
- ⑤ ㉠, ㉡ 모두 화자가 현실의 어려움을 견뎌 낼 수 있는 힘을 준다.

17. (가)의 [A] 부분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사각사각 소리나는 / 연하고 부드러운 연필 글씨를 / 몇 번이고 지우며 / 다시 쓰는 나의 하루 // 예리한 칼끝으로 몸을 깎아어도 / 단정하고 깨끗한 한 자루의 연필처럼 /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 이해인, 「살아 있는 날은」
- ②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 말없이 삭이고 /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 한 세상을 누리자 - 김남조, 「설일(雪日)」
- ③ 가을에는 / 사랑하게 하소서..... /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 김현승, 「가을의 기도」
- ④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 고요한 눈 쌓이는 소리, / 세상은 지금 기도(祈禱)의 끝이노라 /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 설레이는 평화(平和)로서 덮이노라 - 고은, 「속(續) 눈길」
- ⑤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 우리가 저와 같아서 /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 일이 끝나 저물어 /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 쭈그러 앉아 담배나 피우고 / 나는 돌아갈 뿐이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18.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금’과 ‘황금 버이삭’은 홍부 부부가 추구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② ‘그것이 확실하 문제다’에서 ‘문제’는 ‘물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 ③ ‘손발 닳은 처지’는 홍부 부부가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④ ‘거울면(面)’은 홍부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⑤ ‘본(本)웃음’은 ‘박덩이를 사이 하고’ 홍부 부부가 지을 수 있었던 본디의 순수한 웃음을 의미한다.

19. 다음은 (다)를 바탕으로 영상물을 만들려고 기획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획 의도	빈이무원(貧而無怨)이라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어 조선 시대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보여준다.
-------	---

	계획	기대하는 효과	
배경	풍광이 아름다운 농촌으로 설정하자.	자연과 물아일체(物我一體)를 이루며 살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①
등장 인물	궁핍한 상황을 넉넉한 마음으로 수용하는 선비로 설정하자.	호구지책(糊口之策)에 연연하지 않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다.	②
보여 주고자 하는 장면들	넓지 않은 논과 밭에서 화자가 몸소 농사일을 하며 땀을 흘리는 장면	자급자족(自給自足)의 소박한 기쁨을 누리며 전원에서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③
	화자가 석양을 배경으로 강가에서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는 장면	청풍명월(淸風明月)과 벗이 되어 지내고 싶은 화자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다.	④
	화자가 어렵게 끼니를 때우면서도 충효, 우애 등을 실천하며 지내는 장면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화자의 신념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⑤

20. ㉠~㉣ 중, 함축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서당에 다니는 무리는 그 상(相)이 아름답고, 시장(市場)의 무리는 그 상이 검으며, 뱃사공이나 마부의 무리는 그 상이 사납고 약빠르다. 대체로 그 익히는 것이 오래됨으로써 그 성품이 날마다 변하게 되고,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서 상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 사람들은 그 상이 변한 것을 보고 말하기를, “그 상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익히는 것이 저와 같다.”고 하니, 아아, 그것은 틀린 말이다.

대저 학문을 익힌 사람은 사리(事理)를 통달하는 데 효과가 있고, 이(利)를 익힌 사람은 재물을 모으는 데 효과가 있으며, 힘을 익힌 사람은 비천해지고, 악(惡)을 익힌 사람은 마침내 패망하게 된다. 익힘과 효과가 아울러 진보함에 따라 효과와 상이 모두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상이 변한 것을 보고 또한 말하기를, “그 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저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니, 아아, 어찌면 그리도 어리석은가.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의 눈동자가 빛나면 부모는 말하기를, “이 아이는 학문을 시킬 만하다.”라고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서적을 사들이고 스승을 정해 준다. 선생은 말하기를, “이 아이는 가르칠 만하다.”라고 하여, 그 아이에게 붓, 먹, 서판(書板)을 더 주게 되니, 이 아이는 더욱 공부에 힘쓰고 날로 더 부지런하게 된다. 대부(大夫)는 이 사람을 천거하기를, “이 사람은 등용할 만하다.”라고 하여, 그를 추켜세우고 선발하여 후에 그 사람은 재상에 이르게 된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얼굴이 복스럽게 생겼으면 아이의 부모는 말하기를, “이 아이는 부자가 될 만하다.”라고 하여, 재산을 더 주고, 부인(富人)은 그 아이를 보고 말하기를, “이 아이는 일을 시킬 만하다.”라고 하여, 자본을 더욱 주게 되니, 이 아이는 더욱 힘쓰고 날마다 부지런히 사방으로 장사를 다녀서 더욱 재산을 늘릴 수 있게 되고, 후에는 큰 부자가 된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눈썹이 더부룩하고, 또 어떤 아이가 콧구멍이 밖으로 드러났으면, 그 아이의 부모와 사장(師長)들은 그 아이를 양성하고 협조하는 것을 모두 앞서 말한 것과 반대로 하니, 이들이 어찌 자기 몸을 귀하고 부하게 할 수 있겠는가.

[A] 세상에 재덕(才德)을 갖추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 경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상에다 그 허물을 돌리지만, 그 상을 따르지 않고 이 사람을 우대했다면 이 사람도 재상이 되었을 것이다. 또 이해에 밝고 귀천을 살폈는데도 종신토록 곤궁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도 사람들은 상에다가 역시 그 허물을 돌리지만, 그 상을 따지지 않고 이 사람에게 자본을 대주었다면 이 사람 또한 큰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거처는 기질을 변화시키고, 양육은 신체를 변화시키며, 부귀는 그 뜻을 음란하게 하고, 우환은 그 마음을 슬프게 한다. 그리하여 아침에는 무성하다가 저녁에는 시들게 된 사람도 있고, 어제는 초췌했다가 오늘은 살쥔 윤택해진 사람도 있게 되니, 상이 어찌 일정한 것인가.

사서인(士庶人)이 상을 믿으면 직업을 잃게 되고, 경대부(卿大夫)가 상을 믿으면 그 친구를 잃게 되며, 임금이 상을 믿으면 신하를 잃게 된다.

— 정약용, 「상론(相論)」—

21. 위 글의 구상 단계에서 글쓴이가 고려했음직한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상반된 사례들을 보여주어 독자들이 논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자.
- ② 상을 믿었을 때 야기되는 폐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논지를 강화하자.
- ③ 무엇을 익히느냐에 따라 상이 바뀐다는 것을 설명하여 논지를 분명히 드러내자.

- ④ 재상이나 큰 부자가 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 정보로서의 가치를 높이자.
- ⑤ 상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자.

22. <보기>에 대한 반응 중, 위 글의 글쓴이와 관점이 상통하는 것은?

— < 보 기 > —

외모에 신경을 쓰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인상이 좋지 않아 취업 면접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거나,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여 맞선을 볼 때마다 퇴짜를 맞는 남성들은 성형수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한다.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남성들에게까지 붙고 있는 성형 열풍에 대한 네티즌들의 사이버 감론을막이 한창인데, ‘남성 성형에 긍정적’이라는 견해가 늘고 있다.

- 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성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② 부모님께 물려받은 몸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③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이므로, 성형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④ 외모가 바뀌면 그에 따라 성품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외모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성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⑤ 외모를 바꾼다고 성품이나 능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 외모보다는 성품을 닦고 능력을 기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23. ㉠에 대한 평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허례허식에 집착하고 있다.
- ② 비판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다.
- ③ 직업에 관한 시각에 편견이 있다.
- ④ 세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 ⑤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으로 이해하고 있다.

24. [A]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에 가장 가까운 진술은? [3점]

- 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꿀벌은 꽃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 ② 고양이 발톱을 갈고 호랑이 목소리를 흉내낸다 하여 호랑이가 될 수는 없다.
- ③ 똑같은 종이라도 생선을 포장했던 종이는 비린내가 나고, 꽃을 포장했던 종이는 향기가 난다.
- ④ 내가 하찮게 생각하여 버리는 잡동사니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보물이 될 수 있다.
- ⑤ 주변 분위기를 좋게 하는 꽃은 정신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해 주는 과일은 육체 건강에 좋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재즈를 감상할 때 곡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 흐름은 계속해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한 곳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진행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흐름에는 다른 장르의 음악들처럼 긴장과 이완의 작용이 있다. 물론 긴장과 이완이라는 말은 이론적인 표현이다. 실제 악절이나 동기들 간의 연관성을 통해 관찰되는 이런 개념을 굳이 도입하는 것은 일반 대중들도 그 개념을 알면 재즈를 보다 쉽게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재즈곡은 긴장과 이완의 조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긴장과 이완은 상반되는 특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곡의 한 부분이라도 멜로디가 상승할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 긴장의 이미지를 느끼게 되며, 반대로 하강할 때 이완의 이미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긴장과 이완은 재즈곡 전체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지만 하나의 마디에서도 매우 자주 관찰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재즈곡에서 긴장과 이완의 작용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단순히 흘러들기보다는 어느 정도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다음 재즈곡의 악보를 통해서 이해해 보자. ㉠의 경우는 반복되는 진행을 통해 긴장과 이완의 이미지를 느낄 수 없는 경우이다. 물론 곡이 더 진행되면서 어떤 현상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일단 그 자체만 가지고 보았을 때는 그러하다. 그에 반해 ㉡는 멜로디가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 긴장도는 마지막 마디의 끝 음을 기준으로 정점에 다다른다. 물론 이 사례는 매우 단순한 경우이다. 실제에서는 보다 복잡한 구조를 띠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는 ㉠와 반대로 곡이 이완되고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

㉠ ㉡ ㉢

이렇게 멜로디가 상승하고 하강하는 자체만으로 재즈곡의 긴장과 이완의 흐름을 추적한다는 것은 ㉠ 기계적인 접근일 수 있다. 여기에 곡의 리듬 변화와 셈여림에 대한 인식이 보태져야 한다. 곡의 부분 또는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리듬의 변화 및 음의 셈과 여림의 정도를 인식할 수 있게 되면, 곡의 향취를 마음으로 느끼며 긴장과 이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재즈곡에서 리듬의 변화와 음의 셈여림을 쉽게 느끼기 위해서는 베이스와 드럼의 소리에 주목하는 것이 좋다. 이들의 소리에 주목하면 긴장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재즈곡의 음이 강하게 이루어지거나 리듬이 세분화되는 것을 비교적 쉽게 느낄 수 있다.

곡의 긴장과 이완의 흐름을 느끼는 것은 재즈곡을 보다 잘 듣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외에도 재즈곡을 효과적으로 듣기 위한 방법으로 곡과 연주자에 대한 배경 지식을 공부하고 듣는 것이 강조될 수도 있고, 곡을 연주하는 악기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이 강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더라도 재즈곡을 듣는 데 있어서는 그 방법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방법들을 실제로 곡을 듣는 데 적용하는 경험 이 많아져야 재즈를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2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재즈곡의 리듬이 세분화될 때 정서적 긴장감이 이완될 수 있다.
- ② 긴장감을 조성하는 재즈곡의 멜로디는 복합적인 구조를 띌 수 있다.
- ③ 재즈곡의 흐름은 곡의 어떤 부분에서 멈췄다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 ④ 베이스와 드럼에 주목해 재즈곡을 들으면 리듬의 변화를 용이하게 느낄 수 있다.
- ⑤ 재즈곡에서 악절이나 동기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긴장과 이완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26. <보기>의 물음에 대한 글쓴이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어떻게 하면 재즈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을까요?

- ① 다양한 재즈를 접해 재즈가 대중의 기호에 왜 부합하는지를 곡의 흐름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② 재즈를 많이 접하기 전에 악보에 대한 공부부터 함으로써 곡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③ 재즈를 들을 때 곡의 흐름을 이해하려 들지 말고 편안하게 느끼려고 해야 합니다.
- ④ 재즈곡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재즈의 고유한 특징을 발견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 ⑤ 재즈곡의 흐름이 변화하는 양상에 주목하며 많은 곡을 접해 봐야 합니다.

27. ㉠과 같이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곡에 대한 집중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 ② 곡의 셈여림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 ③ 곡의 멜로디에 익숙해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 ④ 곡에 대한 배경 지식의 습득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 ⑤ 곡의 향취를 느끼며 감상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28. ㉠~㉢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 기 >

I 

II 

III 

- | | |
|-------------|-------------|
| (a) (b) (c) | (a) (b) (c) |
| ① I II III | ② I III II |
| ③ II I III | ④ II III I |
| ⑤ III I II | |

【29-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 골목은 몹시도 가팔랐다. 아버지는 그 골목에 들어서기만 하면 미리 저만치 앞에서부터 마차를 세게 몰아가지고는 그 힘으로 하여 단숨에 올라가곤 했다. 그러나 이 작전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더러는 마차가 언덕의 중간쯤에서 더 올라가지를 못하고 주춤거릴 때도 있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마에 심줄을 잔뜩 뒀으며, “이라 이라!” 하면서 노새의 잔등을 손에 휘감고 있는 긴 고삐줄로 세 번 네 번 후려쳤다. 노새는 그럴 때마다 뒷다리를 ㉔(바득바득 / 바작바작) 바둥거리며 안간힘을 쓰는 듯했으나 그쯤 되면 마차가 슬슬 아래쪽으로 미끄러 내리기는 할망정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일은 드물었다.

물론 마차에 연탄을 많이 실었을 때와 적게 실었을 때에도 차이는 있었다. 적게 실었을 때는 그깟 것 달랑달랑 단숨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런 때는 드물고 대개는 짐을 ㉕(가득가득 / 가뜩가뜩) 싣고 다녔다. 가득 실으면 대충 오백 장에서 육백 장까지 실었는데 아버지는 그래야만 다소 신명이 나지 이백 장이나 삼백 장 같은 것은 처음부터 성이 안 차는 눈치였으며, 백 장쯤은 누가 부탁도 안 할뿐더러 아버지도 아예 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우리 동네는 ㉖(변두리)였으므로 얼마 전까지도 모두 그날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연탄 배달도 일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다. 기껏해야 구멍가게에서 두서너 장을 사서는 새끼줄에 ㉗(조롱조롱 / 대롱대롱) 매달고 가는 게 고작이었다. 그랬는데 이삼 년 전부터 아직도 많은 빈터에 집터가 다져지고 하나둘 문화 주택이 들어서더니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동네꼴이 잡혀갔다. 원래부터 있던 허름한 집들과 새로 생긴 집들과는 ㉘(골목) 하나를 경계로 하여 금을 굵듯 나누어져 있었는데, 먼 데서 보면 제법 그럴싸한 동네로 보였다. 일단 들어와 보면 지저분한 한 동네가 이웃에 널려 있지만, 그냥 먼발치로만 보면 2층 슬라브집들에 가려 ㉙(너절너절 / 딱지딱지) 붙인 판잣집 등속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서울의 변두리에 흔한 어느 신흥 부락으로만 보였다.

동네가 이렇게 바뀌자 그것을 가장 좋아한 사람 중의 하나가 아버지였다. 아까 말한 대로 그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연탄을 두서너 장, 많아야 이삼십 장씩만 사가는 터여서 아버지의 일거리가 적고, 따라서 이곳에서 이삼 길로나 떨어진 판 동네까지 배달을 가야 했는데 동네에 새 집이 많이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렇게 먼 걸음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집에서 연탄을 한번 들여놓았다 하면 몇 달씩 때니까 자주 주문을 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일감이 이 동네에서 끝나는 것만은 아니고, 여전히 타동네까지 노새 마차를 몰기는 했지만 그전보다는 자주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된 것만은 사실이었다.

새동네(우리는 우리가 그전부터 살던 동네를 구동네, 문화주택들이 차지하고 들어선 동네를 새동네라 불렀다)가 생기면서 좋아한 것은 비단 아버지만은 아니었다. 구동네에 두 곳 있던 ㉚(구멍가게) 주인들도 은근히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전까지는 가게의 물건들이 뽐양게 먼지를 쓰고 있었고, 두 홉짜리 소주병만 욕실하게 뒀었는데 그 병들 사이에 차츰 환타니 미린다니 하는 음료수병들이며 퍼모스트 아이스크림도 섞이고, 할머니의 주름살처럼 주름이 콕콕 가 팔라비틀어진 사과 사이에 꿀상자도 끼이게 되었다.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우유 배달부가 아침마다 골목을 드나들고, 갖가지 신문 배달부가 조석으로 골목 안을 누비고 다녔다. 전에는 일전도 앓던 슈샤인 보이가 새 벽이면 “구두 닦으……” 하면서 외치고 다녔다. 전에는 저 아래 큰 한길가 근처에 차를 대놓고, 울 테면 오고 말 테면 말라는 식으로 버티던 청소부들이 골목 안까지 차를 들이대고 쓰레기를

퍼갔다.

그러나 동네의 모습이 이처럼 달라지기는 했어도 구동네와 새동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일이 없었다.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으로 새동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 다만 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구동네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 아무도 그걸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㉛(아버지도 배달일이 늘어나서 속으로는 새동네가 생긴 것을 은근히 싫어하지는 않는 눈치였지만, 식구들 앞에서조차 맞대 놓고 그런 내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노새는 온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짹짹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고 다녔다. 아니 그것은 새동네 쪽에서 더욱 그랬다. 원래의 우리 동네에서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중간 줄거리】 어느 날 마차를 끌고 가파른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던 노새가 달아나 버린다. 이에 아버지와 아들은 노새를 찾아 이곳저곳으로 수소문하며 다니다가 동물원에까지 가게 된다.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 얼룩말은 두 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고, 얼룩말을 한번 쳐다보고 하였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어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길게 켜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㉜(벌름벌름 / 날름날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 와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해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 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㉝(동물원)을 나왔을 때 이미 거리는 밤이었다. 이번엔 집 쪽으로 걸었다. 그럴 수밖에 우리는 더 갈 데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 동네가 저만치 보였을 때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 ㉞(대궐집)에서 발을 멈추었다. 힐끗 나를 돌아보고 나서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런 일도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술집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왁와 떠들어대고 있었다. 돼지고기를 굽는 냄새, 찌개 냄새, 김치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의아스런 눈초리로 쳐다보았으나 이내 시선을 거두고 자기들의 얘기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아버지는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키더니 안주는 내 쪽으로 밀어주고 술만 거푸 마셔댔다. 아버지는 술이 약한 편이어서 저러다가 어찌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아버지, 고만 드세요. 몸에 해로워요.”

“으응.”

대답하면서도 아버지는 술잔을 놓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주를 계속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장기를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수 있니?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힃 한번 웃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힃 웃었다.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 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마냥 텅텅이 즐거웠다. 노새 가족-노새 가족은 우리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다.

- 최일남, 「노새 두 마리」 -

2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서술자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빌려 아버지와 아들('나')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 ② 아들('나')의 시선으로 동네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을 그리고 있다.
- ③ 아버지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던 아들('나')의 시각을 깨우쳐 주며 이야기하고 있다.
- ④ 아버지를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을 아들('나')이 바로잡아 가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⑤ 새동네 사람들의 시선에서 구동네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동하며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나')의 삶을 관찰하고 있다.

30. 위 글에서 공간적 배경의 기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변두리** : 소설의 주요 무대가 성장과 개발에서 그동안 소외되거나 뒤쳐졌던 지역임을 말해준다.
- ② **골목** : 구동네와 새동네 사이의 경제적인 수준 차이와 소통의 단절감을 드러낸다.
- ③ **구멍가게** : 구비된 품목의 변화를 통해 동네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 ④ **동물원** : 아들이 아버지라는 존재와 그 면모를 새로이 발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⑤ **대포집** : 술로써 인물들 사이에서 생긴 갈등을 풀어내고 화해를 도모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31. ㉠에 내재된 '아버지'의 심리를 추리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내가 새동네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내색하면 가족들이 흔들리겠지. 그러니 당분간은 내색하지 말아야겠어.'
- ② '남들은 잘도 사는데 나는 변변하지 못한 직업 때문에 돈벌이가 잘 되지 않아. 직업을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 ③ '돈이 좀 벌린다고 가족들 앞에서 너무 으스스하면 가족들이 경박하다고 생각할지 몰라. 그러니 속으로만 좋아해야지.'
- ④ '부지런히 돈을 모으다 보면 우리도 새동네 사람들처럼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꼭 참고 일을 열심히 해야겠어.'
- ⑤ '돈벌이가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못마땅한 새동네 사람들 덕분에 그리 된 것을 내색한다면 자존심 없는 사람으로 보일 거야.'

32.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고려하여 ㉠~㉣에 들어갈 어휘를 선택한 것 중 알맞지 않은 것은? [1점]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	선택 어휘
① ㉠	악착스럽게 애쓰는 모양	바둑바둑
② ㉡	양이 많이 차 있는 모양	가득가득
③ ㉢	매달린 물건이 흔들리는 모양	조롱조롱
④ ㉣	자그마한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 모양	닥지닥지
⑤ ㉤	벌어졌다 닫혔다 하는 모양	벌름벌름

33. 위 글의 제목('노새 두 마리')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추리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이 중, 적절한 의견을 제시한 학생을 골라 묶은 것은? [3점]

< 보 기 >

- 가영 : 아버지는 바깥일을 할 때는 노새를, 집안일을 할 때는 아내를 고맙게 여기고 있다는 데에 착안한다면, 제목은 '노새'와 '어머니'를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영 : 평생을 노새와 함께 해 온, 노새를 닮은 아버지가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라고 한 독백에 주목한다면, 제목은 '노새'와 '아버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 다영 : 기본 좋게 취한 아버지가 '히힃' 웃자 나도 노새 새끼인 듯 아버지를 따라 덩달아 '히힃' 웃고 있는 장면에 초점을 둔다면, 제목은 '아버지'와 '나'를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라영 : 피붙이보다 더하게 여긴 노새를 잃고 난 뒤 아버지는 자식인 '나'를 노새로 여기고 위안 받고 있는 것에 근거한다면, 제목은 '아버지'와 '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 ① 가영, 나영 ② 가영, 다영 ③ 나영, 다영
- ④ 나영, 라영 ⑤ 다영, 라영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블로그(blog)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웹(web)'과 기록한다는 의미를 지닌 '로그(log)'가 합쳐진 말이다. 운영자가 자신의 신상, 관심 분야, 특정 사건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1인 미디어'라고도 불린다. 현재 인터넷 상에는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 개인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미니 홈페이지, 그리고 최근의 인터넷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블로그에 이르기까지 많은 하위 미디어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블로그는 경제·정치·문화·연예 등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활용될 만큼 인터넷 상의 강력한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블로그가 온라인 상의 대표적인 정보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 힘은 무엇일까? 그 대답으로 우선 질 높은 정보와 적극적인 소통에 대한 네티즌의 욕구를 들 수 있다. 인터넷 발달 초기부터 의사소통 공간으로 이용되었던 **게시판**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렀다 가기 때문에 정보를 빠르게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익명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정보의 질은 보장할 수 없었다. 또 온라인 공간에 대한 소유 의식이 강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비해 **개인 홈페이지**는 게시판의 단점을 다소 보완하기는 했으나, 이를 제작·운영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의 활용 능력을 따로 갖추어야 하는 등 접근이 수월하지 않았다. 게다가 홈페이지 공간을 무료로 제공받기도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네티즌은 양질의 구체적인 정보를 나눌 수 있으면서도 자신의 방식대로 ㉠ 손쉽게 꾸밀 수 있고 별다른 경제적 부담이 없는 공간을 원하게 되었다. 이런 욕구로 인해 탄생한 것이 바로 **블로그**다.

이와 같이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며 개방적 공간인 블로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미디어로는 미니 홈페이지를 들 수 있다. 그런데 **미니 홈페이지**는 블로그와 달리 개인의 신상 관리라는 사적인 역할에 치중한다. 이런 점에서 미니 홈페이지는 (㉔)의 특성이 강한 반면, 블로그는 (㉕)와/과 같은 성격이 강한 공간인 셈이다. 즉 블로그나 미니 홈페이지 모두 인터넷 상의 중요한 소통 수단이지만, 블로그는 네티즌과의 생산적인 대화를 위한 미디어로서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스스로 아이템을 개발한 뒤 기사를 작성해 네티즌의 반응을 기다리고, 거기에 또다시 반응하며 이야기를 확대해 가는 1인 미디어 시대, 그 중심에 블로그가 놓여 있다.

동일한 관심 분야와 그에 대한 참여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모임인 **인터넷 카페**의 등장도 블로그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 카페는 타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읽는 수동적 위치에 있던 네티즌을 정보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였고, 쌍방향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인터넷 카페는 운영자가 오랜 시간 공들여 관리하지 않으면 네티즌의 참여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네티즌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공간인 블로그로 시선을 돌리게 된 것이다.

해당 관심 분야와 사회 현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른 네티즌과 공유하는 이런 블로그의 특징은 특정 미디어의 정보 독점에 대항하며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㉖‘대안적 미디어’로서의 미래를 가능하게 한다. 물론 블로그가 연예인의 상품성을 강화하거나 기업의 상품 판매 등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과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블로그는 앞으로도 대안적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네티즌이 블로그를 얼마나 더 흡인력 있는 공간으로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34. 위 글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인터넷 미디어 중에는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활용되는 것도 있다.
- ② 인터넷 미디어 중에는 본래의 기능과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도 있다.
- ③ 익명으로 활동하는 네티즌이 많은 공간에서는 정보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 ④ 인터넷 상에서 개인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은 공동의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어렵다.
- ⑤ 활발한 의사소통에 대한 네티즌의 욕구는 새로운 인터넷 미디어의 출현을 가져왔다.

35. 위 글에 나타난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게시판** : 블로그에 비해 참여 네티즌의 책임감이 약하다.
- ② **개인 홈페이지** : 운영 방법을 터득하기가 블로그보다 어렵다.
- ③ **블로그** : 개인 홈페이지와 미니 홈페이지처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개인적인 공간이다.
- ④ **미니 홈페이지** :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점에서는 블로그와 유사하다.
- ⑤ **인터넷 카페** : 네티즌이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로그와 다르다.

36.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할 때, 단어의 구조가 ㉑과 일치하는 것은?

< 보 기 >

합성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언어 형식’끼리 결합한 단어 구조로, 그 구체적인 결합 방식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한 예를 들면 ‘손쉽다’는 ‘손[手]’과 ‘쉽다’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통사적으로는 ‘손에 쉽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부사어 ‘손에’에서 조사 ‘-에’가 생략된 채 서술어 ‘쉽다’와 결합한 것이다.

- ① 값싸다 ② 막되다 ③ 선보다
- ④ 앞서다 ⑤ 풀죽다

37. <보기>를 참고로 할 때, 블로그를 ㉑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1990년에 일어난 걸프전에 미국의 ‘CNN’ 방송이 있었다면, 2003년의 이라크전에는 ‘블로그’가 있었다. 양심 있는 블로거들은 이라크 전쟁의 참상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생생하게 중계함으로써, 거대한 미디어 자본인 CNN의 정보 독점에 맞서 ‘미디어 전쟁’을 벌였다. 당시 미국은 브라운관을 통해 미군의 승전보를 감격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정작 현장을 지켜본 많은 블로거들이 TV 화면과는 사뭇 다른 이라크전의 실상을 알림으로써 세계인들로 하여금 ‘왜 이라크와 전쟁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① 거대 미디어 못지않게 개인적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 ② 사건 현장의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여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 ③ 부족한 정보력을 보완하기 위해 거대 미디어 자본이 주도하여 조성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 ④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 ⑤ 양심적인 개인의 정보가 전 세계의 네티즌과 연결됨으로써 그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38. ㉔와 ㉕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㉔	㉕
①	개인이 이용하는 ‘휴대전화’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전화’
②	사적인 일상을 기록하는 ‘일기장’	정보와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모뎀 일기’
③	수동적인 계산 도구인 ‘주판’	기계가 직접 계산 결과를 제시하는 ‘계산기’
④	소수의 사람이 탈 수 있는 ‘택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버스’
⑤	물건을 임시로 넣어 두는 ‘보관함’	물건을 오랜 기간 보관하는 ‘창고’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속담이란 살아가면서 체험한 내용 중 생활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교훈적인 내용을 짧은 글로 나타낸 관용적인 표현이다. 속담은 대부분 군더더기가 없이 비교적 간결하면서 비유적인 언어 형식으로 되어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을 듣고 어느 누구도 등잔 밑이 실제로 어두운지 아니면 어둡지 않은지를 확인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범인을 찾지 못하는 형사에게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어.”라고 하는 경우는 “범인이 예기치 못한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일 수 있으니 그 방향으로 조사를 해 봐.”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속담은 이처럼 글자 그대로의 의미인 ‘말해진 것’과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인 ‘의도된 것’이 다르게 표현되는데, 이것은 전달하려는 정보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무엇에 빗대어 말하는 속담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나)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하였다가 사회적인 공인을 얻어 속담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는 이유는 그 발생과 표현이 신선한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을 분석해 낼 수 있다면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속담이 비유적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는 속담의 표현 방식이 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속담이 그런 표현 효과를 가지게 된 이유가 비유 이외에 또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다) 그 비밀의 해법은 기존의 속담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 보면 표현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속담은 형성 당시의 시대상과 생활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에 오래 전에 형성된 속담들 중에는 시대가 바뀌고 생활 모습이 바뀌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 기존의 속담을 약간 변형함으로써 속담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개발에 편자’라는 속담과 이를 현대적으로 변형시킨 ‘개발에 백(白)구두’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 보자. 이때 후자가 더 효과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을 것이다.

(라) 오늘날 ‘개발에 편자’보다 ‘개발에 백구두’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발에 편자’는 ‘격(格)에 맞지 않고 지나침’이라는 의미를 지닌 속담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말[馬]이 사라짐으로 해서 말발굽에 대어 붙이는 쇳조각인 ‘편자’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편자’라는 말로는 이 속담의 의미를 제대로 상기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에 ‘백구두’의 경우는 현대의 남성들이 멋을 내기 위해 신는 신발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사물이다. 따라서 현재는 ‘백구두’가 이 속담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에 더 적합한 구체적인 사물이기에 ‘구체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백구두’가 이 속담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더 잘 드러내기에 ‘전형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속담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구체적이고 전형적인 사물로 비유하는 표현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현 효과가 높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마) 우리의 속담은 재치가 넘치는 풍자와 생생한 비유로 되어 있어 흥미롭고 ㉡ 구수하기 이를 데 없다. 또, 그 속에는 참된 교훈이 녹아 있어 씹을수록 감미롭고 새로운 맛을 풍긴다. 속담은 그야말로 언어 중의 보석으로 만인의 지혜요, 민중의 시인 것이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인상 깊게 말하고자 할 때, 풍자나 비유를 들어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때, 어려운 충고를 하고자 할 때, 속담을 채지 있게 사용한다면 우리의 언어생활 수준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39. 위 글의 글쓴이가 강조하는 속담 활용의 효과는?

- 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말의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② 속담 속에 담긴 교훈을 거울삼아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
- ③ 의사소통을 부드럽게 하여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
- ④ 속담에 담긴 풍자 정신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 ⑤ 속담의 변천 과정을 통하여 우리 문화의 변동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40.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 : 용어를 정의하여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 ② (나) : 의문 형식을 빌려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다) : 예시를 활용하여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라) : 대상을 분류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마) : 비유를 통하여 대상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41. ㉠의 과정에서 ‘효과 증대’보다는 ‘의미 변화’가 일어난 것은? [1점]

- ① 날개 부러진 매 → 엔진 고장 난 자동차
- ② 빈 수레가 요란하다. → 빈 깡통이 요란하다.
- ③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 ④ 당장 먹기엔 꽃감이 달다. → 당장 먹기엔 초콜릿이 달다.
- ⑤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 빨래집게 놓고 에이(A)자도 모른다.

42. ㉡은 <보기>의 ‘항목 2’와 같이 의미가 전이되어 쓰인 낱말이다. ㉢과 같은 쓰임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 보 기 > —

구수 - 하다 ㉢ 【여 불규칙】

1. 맛·냄새가 비위에 좋다. ㉢ 구수한 보리차 냄새. / 된장찌개 맛이 ~.
2. 말이나 이야기 따위가 마음을 끄는 은근한 맛이 있다. 마음씨가 인심이 넉넉하고 푸근하다. ㉢ 구수한 언변.

- ① 그는 뱃속이 겉은 사람이다.
- ② 그 사람은 입이 무거우니 안심이군.
- ③ 그 친구는 말을 느끼하게 해서 징그러다.
- ④ 햇벌이 따가워 그늘을 찾아 잠시 쉬고 싶었다.
- ⑤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싱거운 사람이더군.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정선군에 한 양반이 살았는데 어질고 글읽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집이 가난하여 빌린 환곡이 천 석이나 되었다. 어느 날 관찰사가 환곡을 조사하다가 이를 알고 노하여 양반을 가두라고 하자, 군수는 갚을 능력이 없는 양반을 딱하게 여기며 난감해 한다.

양반은 밤낮으로 울기만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 부인이 역정을 냈다.

“당신은 평생 글읽기만 좋아하더니 고을의 환곡을 갚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군요. 쫓쫓 양반, 그까짓 양반만 찾더니 그 양반이란 것이 한 풀어치도 못 되는구려.”

그 마을에 사는 한 부자가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존귀하게 대접받고 나는 아무리 부자라도 항상 비천하지 않느냐. 감히 말도 한 번 타지 못하고, 양반만 보면 굶질굶질 두려워해야 하고, 영금영금 가서 정하배(庭下拜)를 하는데, 코를 땅에 대고 무릎으로 기는 등 우리는 노상 이런 수모를 받는단 말이다. 이제 동네 양반이 가난해서 타 먹은 환자를 갚지 못하고 시방 아주 난처한 판이니 그 형편이 도저히 양반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장차 그의 양반을 사서 가져 보겠다.”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보고 자기가 대신 환자를 갚아 주겠다고 청했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했다. 그래서 부자는 즉시 곡식을 관가에 실어가서 양반의 환자를 갚았다.

군수는 양반이 환곡을 모두 갚은 것을 놀랍게 생각했다. 군수가 몸소 찾아가서 양반을 위로하고, 또 환자를 갚게 된 사정을 물어보려고 했다. 그런데 뜻밖에 양반이 병거지를 쓰고 짧은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었드려 ‘소인’이라고 자칭하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자니 군수가 깜짝 놀라 내려가서 부축하고,

“귀하는 어찌 이다지 스스로 낮추어 욕되게 하시는가요?”

하고 말했다. 양반은 더욱 ㉠ 황공(惶恐)해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었드려 아뢰었다.

“황송하오이다. 소인이 감히 욕됨을 자칭하는 것이 아니오라, 이미 제 양반을 팔아서 환곡을 갚았습지요. 동리의 부자 사람이 양반이 읍습니다. 소인이 이제 다시 어떻게 전의 양반을 ㉡ 모칭(冒稱)해서 양반 행세를 하겠습니까?”

군수는 감탄해서 말했다.

“군자로구나 부자여! 양반이로구나 부자여! 부자이면서도 인색하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고,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고,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사모하니 지혜로운 일이다. 이야말로 진짜 양반이로구나. 그러나 사사로이 팔고 사고서 증서를 해 두지 않으면 송사(訟事)의 꼬투리가 될 수 있다. 내가 너와 약속을 해서 군민(郡民)으로 증인을 삼고 증서를 만들어 미덥게 하되 본관이 마땅히 거기에 서명할 것이다.”

그리고 군수는 관부(官府)로 돌아가서 고을 안에 사족(士族) 및 농공상(農工商)들을 모두 불러 관정(官庭)에 모았다. 부자는 향소(鄕所)의 오른쪽에 서고, 양반은 공형(公兄)의 아래에 섰다. 그리고 양반 매매 증서를 만들었다.

“건륭(乾隆) 10년 9월 아무 날에 증서를 만드노니, 천 석의 환곡을 갚기 위하여 양반을 판다. 원래 양반이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글을 읽으면 가리켜 사(士)라 하고, 정치에 나아가면 대부(大夫)가 되고, 덕이 있으면 군자(君子)이다. 무반(武班)은 서쪽에 늘어서고 문반(文班)은 동쪽에 늘어서는데,

이것이 ‘양반’이니 너 좋을 대로 따를 것이다. ㉢ 야비(野卑)한 일을 딱 끊고 옛 일을 본받고 뜻을 고상하게 할 것이며, 늘 오경(五更)만 되면 일어나 황(黃)에다 불을 당겨 등잔을 켜고 눈은 가만히 코끝을 보고 발꿈치를 궁둥이에 모으고 앉아 동래박의(東萊博義)를 얼음 위에 박 밀듯 읽는다. 주립을 참고 추위를 견뎌 가난함을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한다. ... (중략) ... 추위도 화로에 불을 켜지 말고, 말할 때 이 사이로 침을 흘리지 말고, 소 잡는 일을 말고, 돈을 가지고 놀음을 말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품행이 양반에 어긋남이 있으면, 이 증서를 가지고 관(官)에 나와 ㉣ 변정(辨正)할 것이다.”

이렇게 증서에다 글을 쓴 다음 성주(城主) 정선군수(旌善郡守)가 이름을 쓰고 좌수(座首)와 별감(別監)도 증인으로 서명을 하였다.

이에 통인(通引)을 시켜 도장을 찍는데, 그 소리는 엄고(嚴鼓)치는 소리와 같고, 그 모양은 북두성(北斗星)이 종으로, 삼성(參星)이 횡으로 찍혀졌다.

부자는 호장(戶長)이 증서를 읽는 것을 꼭 듣고 한참 멍하니 있다가 말했다.

“양반이라는 게 이것뿐입니까? 나는 양반이 신선 같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다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걸요. 원하옵건대 좀 더 이롭게 문서를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문서를 다시 작성했다.

“하늘이 민(民)을 낳을 때 민을 넷으로 구분했다. 사민(四民)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사(士)이니 이것이 곧 양반이다. 양반의 이익은 막대하니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않고 약간 문사(文史)를 ㉤ 섭렵(涉獵)해 가지고 크게는 문과(文科) 급제요, 작게는 진사(進士)가 되는 것이다. 문과의 홍패(紅牌)는 길이 두 자 남짓한 것이지만 백물이 구비되어 있어 그야말로 돈자루인 것이다. 진사가 나이 서른에 처음 관직에 나가더라도 오히려 이름 있는 음관(蔭官)이 되고, 잘 되면 남행(南行)으로 큰 고을을 맡게 되어, 귀밀이 일산(日傘)의 바람에 희어지고, 배는 종놈의 대답 소리에 저절로 불려진다. 방에는 기생이 귀고리로 치장하고, 뜰에는 곡식 되는 소리가 학 우는 소리 같으니라. 궁한 양반이 되어 시골에 묻혀 있어도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있으니, 이웃집 소가 있으면 내 논밭을 먼저 갈게 하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내 밭 김을 먼저 매게 하는데, 어느 놈이든지 감히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코에 잿물을 먹이고 상투를 붙들어 매고 수염을 자르는 등 갖은 형벌을 해도 감히 원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부자는 증서를 중지시키고 혀를 내두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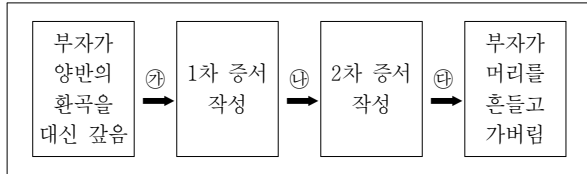
“아이구, 맹랑합니다그러. 나를 도적놈으로 만들 셈이란 말ियो?” 하고 머리를 흔들고 가버렸다. 그 뒤로는 한평생 다시는 양반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한다.

- 박지원, 「양반전」 -

4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극적 반전을 통하여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②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삽입하여 국면을 전환하고 있다.
- ③ 인물 간의 첨예한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상황에 따라 바뀌는 인물의 심리를 독백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적극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과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44. 위 글의 사건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자의 심리를 추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경제력으로 양반을 굴복시킨 것에 통쾌함을 느낌
- ② ㉡ : 평소 애용했던 신선 같은 양반의 지위를 기대함
- ③ ㉢ : 양반의 의무만 지나치게 강조한 증서 내용에 실망함
- ④ ㉣ : 양반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증서 내용의 수정을 바람
- ⑤ ㉤ : 양반들이 특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있음에 환멸을 느낌

45.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위 글의 작가가 고려했을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선비란 것은 하늘이 내린 벼슬이며, 선비[士]의 마음[心]은 곧 지(志)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뜻이란 어떠한 것인가. 첫째, 권세와 이익을 피하지 말 것이니, 선비는 몸이 비록 높아지더라도 선비에서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몸이 비록 곤궁하더라도 선비의 본분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지금 소위 선비들은 명절(名節)을 닦기에는 힘쓰지 않고 부질없이 문벌(門閥)만을 이득의 기회로 여겨 그의 세덕(世德)을 팔고 사게 되니, 이야말로 저 장사치에 비해서 무엇이 낫겠는가. 이에 나는 이 양반전을 써 보았노라.”

— 박지원, 『방경각외전』 —

- ① 신분 제도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기존 질서를 부정하고, 평민들의 근대 의식을 고취해야 해.
- ② 목민관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해. 같은 양반의 편에 서서 양반만 두둔해서는 안 되지.
- ③ 양반들은 경제적으로 무능해서는 안 돼.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의지가 약해지고 결국 뜻을 바로 세울 수 없을 거야.
- ④ 양반의 위세를 내세워 사리사욕을 탐해서는 안 되지. 진정한 양반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몸과 마음을 닦아야 해.
- 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므로 공허한 관념과 명분에 얽매인 고루한 의식을 버리고 진실로 백성을 사랑하는 인물이 등용되어야 해.

46. ㉠~㉤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황궁(惶恐) : 위엄이나 지위에 놀려 두려워함
- ② ㉡ 모칭(冒稱) : 이름을 거짓으로 꾸며 댐
- ③ ㉢ 야비(野卑) : 성질이나 행동이 상스럽고 천함
- ④ ㉣ 변정(辨正) : 옳고 그른 것을 따져 바로잡음
- ⑤ ㉤ 섭렵(涉獵) : 책이나 문서를 닦치는 대로 구함

【47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가 속속 등장하여 기존의 피스톤 엔진 차량과 경쟁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자동차가 피스톤 엔진을 장착하고 있지만 이 양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를 일이다. 한때 맞추가 나타나 피스톤 엔진의 (㉠)을/를 무너뜨릴 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건의 주인공은 1960년 자동차 생산에 뛰어든 독일의 NSU 모터가 개발한 로터리 엔진이었다.

로터리 엔진은 피스톤의 왕복 운동으로 힘을 얻는 피스톤 엔진과 달리, ㉡ 로터의 회전 운동에 의해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4행정을 수행한다. 즉 흡기구를 통해 들어온 연료가 로터의 회전에 의해 압축되고, 이것이 점화 플러그에 의해 폭발한 후, 연소된 가스를 배기구로 내보내는 4행정을 모두 로터가 돌면서 수행하는 것이다.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줘야 했던 과정이 생략되었으므로 로터리 엔진은 피스톤 엔진에 비해 소음이 적고 움직임도 원활했다. 또 구조도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무게가 가벼워졌으며, 복잡한 부품 생산 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

방켈 로터리 엔진으로 명명된 이 엔진은 시연(試演)에 성공하고 그로부터 4년 뒤 시판에 들어갔다. 그 이후 이 엔진을 장착한 차가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두 차례나 우승을 거두면서 로터리 엔진의 성능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피스톤 엔진과 달리 고속에서 소음도 들리지 않았고, 가속도 잘 되었다. 드디어 자동차의 신기원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 속에 ‘Ro 80’이 탄생했다. ‘Ro 80’은 로터리 엔진을 장착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당시의 자동차와 확연히 달라 유명인들이 앞 다투어 구입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피스톤 엔진은 더 이상 이전의 명성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복병이 있었다. 로터리 엔진은 피스톤 엔진보다 가속할 때 소음은 훨씬 적었으나 운전자의 고속 주행으로 더 많은 사고를 유발했다. 또 계속 가속하다가 별안간 엔진이 멈추는 사고도 종종 발생했다. 그러자 로터리 엔진에 대한 기대는 점차 실망으로 바뀌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SU 모터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로터리 엔진의 장점을 적절히 부각시키지 못해 시장 공략에는 실패했다.

1970년대 들어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로터리 엔진은 제도와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다. 피스톤 엔진보다 질산화를 방출량이 적다는 이유로 친환경적이라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터리 엔진은 연소실 벽이 불규칙하게 마모되어 연료 소비 효율이 좋지 않은 단점이 있었다. 그러던 중에, 1973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석유 파동으로 인해 자동차 시장 상황이 악화되자, 로터리 엔진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되었다. 석유 파동으로 유가가 오르자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로터리 엔진은 자연히 큰 타격을 입었다. 결국 로터리 엔진은 장점을 살리지 못하여 실패한 모델이 되고 말았다.

* 하이브리드 엔진 : 두 가지 이상의 동력원(내연 기관과 전기 모터)을 동시에 사용하는 엔진

47. 위 글을 통해 볼 때, 앞으로 ‘하이브리드 엔진’이 ‘로터리 엔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유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 ② 시장 상황의 변화를 분석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③ 제품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마케팅을 해야 한다.
- ④ 제품의 실용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 ⑤ 잦은 디자인 교체를 지양하여 소비자가 친숙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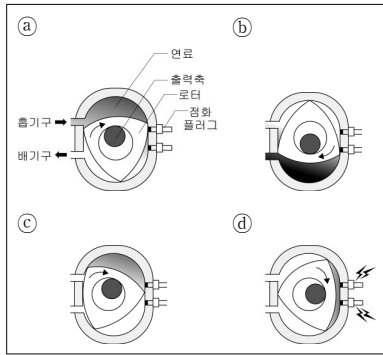
48. 'Ro 80'을 판매할 때, 선보였을 법한 광고 문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이제는 환경을 생각해야 할 때! 친환경적 엔진 Ro 80!
 ② 지긋지긋한 소음이어 안녕! Ro 80, 소음을 잡았습니다.
 ③ 무거운 엔진은 가라! 엔진의 무게를 잡았습니다. Ro 80!
 ④ 에너지는 경쟁력! 현명한 당신은 Ro 80을 선택할 것입니다.
 ⑤ 신속한 가속과 고속 주행! Ro 80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49. 문맥으로 보아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권력(權力) ② 기초(基礎) ③ 성공(成功)
 ④ 아성(牙城) ⑤ 존립(存立)

50. ㉠의 작동 순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a-㉠-b-d
 ② a-㉠-d-b
 ③ a-d-b-㉠
 ④ b-㉠-d-a
 ⑤ b-㉠-a-d

【51-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주 지 이게 무슨 죄 받을 소리니? (조용히 달려며) 도넬아 너, 저 연못을 봐라. 오월이 되면 꽃이 피고, 잎사귀엔 구슬 같은 이슬이 구르구르 있지 않니? 저렇게 잔잔한 연못두 한 겹 물만 퍼내구 보면 시꺼먼 개흙투성이야. 그것뿐인 줄 아니? 십년 묵은 이무기가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갈라구 헛바닥을 널름거리며 비 오기만 기다리구 있단다. 동네두 꼭 저 연못과 마찬가지로. 겉으루 보면 모두 즐겁구 평화로운 듯하지만 속에는 모든 죄악과 진애(震埃)가 들끓는 그야말로 경문에 아로새겨 있는 글자 그대루 오탁(五濁)의 사바(娑婆)니라.

도 념 아니에요. 모두들 그렇지 않대요. 연못 속에는 연근이라는 뿌려지가 있지 이무기는 없대요.

주 지 누가 그러든? 누가 그래?

도 념 동네 사람들 올라올 적마다 물어봤어요.

주 지 그럼, 동네 녀석들 하는 소리는 정말이구 내 말은 거짓말이란 말이지?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모두 거짓말이란 말이지? 오! 이런 불가사리 같은 녀석 봤나? (하고 펄펄 뛰다)

도 념 스님, 바른 대루 말이지 저는 이 절에 있기가 싫습니다.

주 지 듣자듣자 하니까 나중엔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오 그 눈으루 날 보지 마라. 살생을 하드니, 전신에 살이 뻗친 모양이다.

미망인 원내에서 나온다. 뒤따라 그의 모(母).

도 념 (미망인에게 매달리며) 어머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미망인 응, 염려 마라.

주 지 (㉠) 염려 마라니요? 아씨는 그저 애를 데려가실 작정이십니까?

미망인 그럼은요.

친정모 못한다. 넌 애 하는 짓을 지금껏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이러니?

미망인 어머니, 봤기에 더 한층 데려 가구 싶은 생각이 솟았어요.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했으면 그런 짓을 다 했겠어요? 지금 이 애를 바른 길루 이끌어 가려면, 내 사랑 속에서 키우는 것밖에 판 도리가 없어요.

친정모 애는 전생에 제 부모의 죄를 받구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구할라구 해두 구할 수가 없단다. 홍역 마마하듯 이렇게 피하지 못할 죄가 하나씩 둘씩 발병하지 않니? 애보담, 우리 인철이 영혼 축원할 도리나 걱정해라.

미망인 인철인 기왕 죽은 애니까 재를 다시 지내면 그만 아니예요?

친정모 애가 토끼 목도리를 존상 뒤에다 감춰만 뒀다면 모를까. 젊은 별좌(別坐) 애길 들으니까 어젯밤엔 딱 그 더러운 짓을 관세음보살님 목에다 걸어놓구 물끄러미 바라다보구 있었다는구나.

미망인 (울며 미친 듯이) 어머니, 난 애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애당초에 생각이나 안 먹었다면 모를까, 한번 먹어 놓는 것이라 잃구는 살 수가 없어요.

주 지 아씨께서 진정으로 애를 사랑하신다면, 눈앞에 두구 노리개를 삼으실라구 하시지 말고, 애 매디매디에 사무쳐 있는 전생의 죄 속에서 영혼을 구하게 이 절에 뒤 주십시오. 자기 한 몸의 죄만이 아니라 제 아버지 제 어미 죄두 씻어야 할 테니까 애는 여간한 공덕을 쌓기 전에는 저승에 가서 무서운 지옥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중략)

초 부 이렇게 눈이 오는데 잘 테두 없을 텐데. 어딜 간다구 이러니? 응, 갈 곳이나 있어?

도 념 조선 팔도 다 돌아다닐 걸요 뭐.

초 부 아예, 그런 생각 말고. 어서 가서 스님 말씀 잘 듣구 있거라.

도 념 벌써 언제부터 나갈라구 별렀는데요? 그렇지만 스님을 속이고 몰래 도망가기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 갔어요.

초 부 어머니 아버지질 찾거나 했으면 좋겠지만 찾지도 못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구, 거지밖에 될 게 없을 텐데 잘 생각해서 해라.

도 념 꼭 찾을 거예요. 내가 동냥 달라구 하니깐 방문 열구 웬 부인이 쌀을 퍼주며 나를 한참 바라보구 있드니 별안간 '도넬아. 내 아들이, 이게 웬일이냐' 하구 맨발로 마당으로 뛰어내려 오는 꿈을 여러 번 꾸었어요.

초 부 갈라거든 빨리 가자. 펄떡 쏘아지기 전에. 이 길루 갈 테니?

도 념 비탈길로 가겠어요.

초 부 그럼 잘-가라. 난 이 길루 가겠다.

도 념 네, 안녕히 가세요.

초부, 나무를 지고 내려간다. 도넬 두어 걸음 나갈 때 법당에서 주지의 독경 소리. 발을 멈추고, 생각난 듯이 바랑에서 표주박을 꺼내 잣을 한 움큼 담아서 산문 앞에 놓는다.

도 념 (무릎을 꿇고) 스님, 이 잦은 다람쥐가 겨울에 먹으려구 등걸 구멍에다 파놓은 것을 제가 아침에 몰래 끄내 뒀어요. 어머니 오시면 드릴려구요. 동지철달 긴긴 밤 잠이 안 오시어 심심하실 때 깨부심시오. (산문에 절을 한 후) 스님, 안녕히 계십시오.

멀리 동리를 내려다보고 길-게 한숨을 쉰다. 정숙. 원내에서는 목탁과 주지의 엄불 소리만 청정히 들릴 뿐. 눈은 점점 평평 내려기 시작한다. 도념, 산문을 돌아다보며 돌아다보며 비탈길을 내려간다.

- 막 -

- 함세덕, 「동승」 -

51. 위 글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조부’는 도넬에게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② ‘주지’는 도넬의 친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다.
- ③ ‘미망인’은 죽은 자식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절에 왔다.
- ④ ‘친정모’는 타인의 말에 의존하여 도넬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 ⑤ ‘도넬’은 주지에 대한 섭섭함을 삭이지 못한 채 절을 떠나고 있다.

52. <보기>는 ‘구운몽’의 줄거리이다. 위 글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

성진은 육관대사의 심부름을 하던 중, 팔 선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절에 돌아온 성진은 선녀들을 그리워하며 속세의 부귀영화를 생각하다가, 육관대사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팔 선녀와 함께 속세로 추방되는 꿈을 꾸다. 성진이 환생한 양소유는, 팔 선녀가 환생한 여인들을 차례로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고 승상의 벼슬에 올라 영화를 누린다. 벼슬에서 은퇴한 양소유는 어느 날 부귀가 덧없음을 느끼게 되고 육관대사를 만나 꿈에서 깨어 다시 현실의 성진으로 돌아온다. 이후 성진은 팔 선녀와 함께 육관대사의 설법을 듣고 불도에 정진하여 도를 얻어 극락세계로 간다.

- ① 위 글과 <보기>의 ‘절’은 모두 긍정적 공간으로서 속세와 대립된다.
- ② 위 글의 ‘친경모’와 <보기>의 ‘양소유’는 모두 사건이 전환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③ 위 글의 ‘혈육의 정’과 <보기>의 ‘연정(戀情)’은 모두 주인공이 겪는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④ 위 글의 ‘주지’와 달리, <보기>의 ‘육관대사’는 주인공의 욕망을 이해하려는 인물이다.
- ⑤ 위 글의 ‘도념’과는 달리, <보기>의 ‘성진’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53. 위 글의 등장인물들이 사용한 설득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1점]

	화자 → 청자	설득 전략
①	도념 → 주지	연민의 감정을 자극함
②	주지 → 도념	두려움을 자극하여 행동을 만류함
③	주지 → 미망인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함
④	미망인 → 친정모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시함
⑤	친정모 → 미망인	부모의 권위에 의존하여 주장함

54. [A] 부분의 상황에 정서적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1점]

- ① 이 강이 어느 강가 압록(鴨綠)이라 옛자오니
고국산천이 새로이 설위라고
치마끈 드시러 하자 눈물 벌써 굴러라. - 정인보
- ② 아버지 살아신 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닦아 잊지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 정 철
- ③ 뵈는 길고길고 물은 멀고멀고
아버지 그린 뜰은 만코만코 하고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울고 가느니. - 윤선도
- ④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부모곳 아니시면 내 몸이 업실낫다
이 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 가이 업스랴다. - 주세붕
- ⑤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柚子)가 아니라도 품음 적도 하다마는
품어 가 반길 이 없으니 글로 설위하나이다. - 박인로

55. ㉠에 들어갈 지시문을 만들어 넣는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정색을 하며 ② 한숨을 내쉬며
③ 겸연쩍은 듯이 ④ 무엇인가 흘린 듯이
⑤ 인자하고 온화한 얼굴로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하루 두 차례씩 바닷물이 해안으로 밀려들어 왔다가 다시 먼 바다로 물러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살아왔다. 그것은 참으로 신기한 마법과도 같은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비밀이 무척 궁금했지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다만, 이러한 조석(潮汐)이 달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조석이 왜 일어나는지를 과학적으로 처음 밝혀낸 사람은 뉴턴이었다. 뉴턴은 조석을 일으키는 힘의 정체를 조석력으로 보았다. 조석력은 달이나 태양의 만유인력이 지구의 각 부분에 미치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힘을 말한다. 조석력은 천체와 지구를 잇는 축의 양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천체 가까운 쪽과 정반대 쪽의 수위가 동시에 높아진다. 그리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씩 조석이 생기게 된다.

조석은 태양보다는 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달보다 2,700만 배나 무거운 태양이 지구의 작은 위성에 불과한 달보다 영향력이 더 작다는 사실은 놀라게 들린다. 그러나 우주의 역학에서는 질량보다는 거리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할 때가 많은데,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조석에 미치는 달의 영향력은 태양의 두 배 이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달이 매일 약 50분씩 늦게 뜨는 것에 맞추어 만조 시간도 매일 그만큼씩 늦어진다. 그리고 달이 한 달을 주기로 차고 ㉠ ‘기울다’에 따라 만조 때의 수위도 변하게 된다.

조차(조석 간만의 차)는 그림달과 보름달일 때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때에는 태양과 달이 지구와 일직선상에 놓이므로 그 조석력이 합쳐져서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사리'가 된다. 그러나 상현달과 하현달일 때는 태양과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직각 상태에 놓이게 되어 이들의 조석력이 상쇄되기 때문에 수위가 가장 낮아지는 '조금'이 된다. 이때에는 한 달 중 조석 간만의 차가 가장 작게 나타난다.

조석력은 바닷물뿐 아니라 지구의 자전 주기에도 영향을 준다. 조석력에 의해 바닷물과 해저 지각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력이 지구의 자전을 방해하면서 자전 속도가 감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하루의 길이는 5만 년에 1초씩 길어지고 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지구는 에너지를 잃고 있는 반면 달은 지구로부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달의 공전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여 달을 지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 천문학적 관측 결과 실제로 달은 매년 지구로부터 약 3.8cm씩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의 자전이 무한정 느려지는 것은 아니다. ㉠ 지구의 자전주기와 달의 공전주기가 같아질 때까지 느려지다가 그 이후에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게 된다. 그때가 되면 달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고 달이 항상 떠 있는 지역과 전혀 뜨지 않는 지역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달이 항상 떠 있는 지역은 항상 지금의 만조 때만큼의 수위를 유지하고, 달이 전혀 뜨지 않는 지역은 항상 지금의 간조 때만큼의 수위를 유지한다.

만약 언젠가 우주의 어떤 관측자가 지구의 조석의 역사를 쓴다면, 조석은 지구가 어린 시절에 가장 웅장하고 힘 있게 일어나다가 점점 약해져서 언젠가는 멈추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조석 역시 현재 우리가 보는 모습 그대로 유지돼 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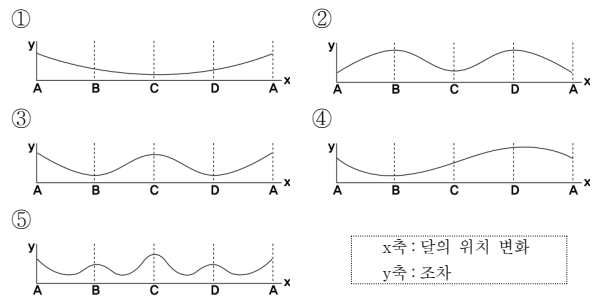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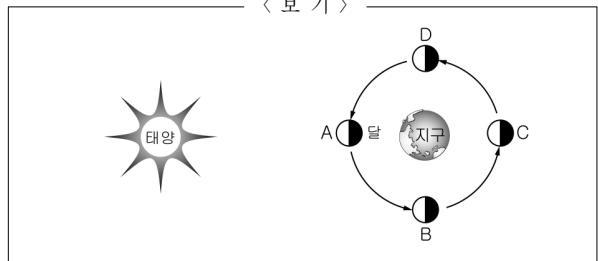
56.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점]

- ① 조석력의 크기는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 ② 조석력은 지구의 자전주기를 길어지게 한다.
- ③ 조석력은 질량보다 거리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 ④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시간은 예측이 가능하다.
- ⑤ 밀물과 썰물은 하루에 각각 두 번씩 일어나고 있다.

57. 위 글의 내용 전개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어의 개념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전문적인 내용을 친숙한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 ③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고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 ⑤ 차이가 있는 두 현상으로 대상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58. <보기>에서 달이 A에서 다시 A로 공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조차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9. ㉠에 '기울다'의 명사형을 넣으려고 할 때, 옳은 것은? [1점]

< 보 기 >

• 용언의 명사형 만들기 : 명사형이란 용언에 특정 어미가 붙어 문장 속에서 명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어간이 모음이나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어간에 '-ㅁ', 그 이외에는 '-음'을 붙인다. 또 다른 명사형 어미 '-기'는 양자의 경우에 모두 붙일 수 있다.

- ① 기울 ② 기울 ③ 기울음
- ④ 기울임 ⑤ 기울이기

60. ㉠과 같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하루의 길이가 지금보다 짧아진다.
- ② 지구의 자전 에너지 방출량이 커진다.
- ③ 지구의 일정한 지역만 달을 향하게 된다.
- ④ 달이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가속화된다.
- ⑤ 태양에 의한 조석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